

전북, 지난해 4분기 경기 회복세

광공업·건설수주로 인해 개선... 도내 인구유출은 지속

지난해 4분기 전북지역 경기가 광공업 및 건설수주에 힘입어 개선됐지만, 도내 인구 유출이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4분기 전북지역 광공업 생산 동향은 화학제품(-10.2%), 금속가공(-23.8%), 의약품(-19.3%) 등에서 감소했으나, 기계장비(44.9%), 자동차(19.3%), 식료품(10.8%) 등이 상승해 전년동분기대비 7.9% 증가했고, 서비스업 동향은 교육(-1.0%) 부문만 줄었고, 숙박·음식점(18.9%), 도소매(4.3%), 금융·보험(4.5%) 등이 상승해 전년동분기대비 4.7% 증가했다.

소매관매매 동향은 대형마트(-11.2%), 승용차 및 연료소매(-1.2%)에서 줄었으나 전문소매점(9.8%), 슈퍼마켓 잡화점 및 편의점(3.8%)이 늘어난 반면, 전년동분기대비 3.7% 증가했고, 건설 동향은 전북지역 건설수주액(경상)이 2조388억 원으로 건축공사 수주(7.5%)는 줄었으나, 토목공사 수주(80.4%)가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2.2% 증가했다.

수출 동향은 전북지역 수출액은 21.0억 달러로 화학제품(-42.2%), 은(-97.4%), 김(-15.8%) 등의 수출이 줄었으나, 화장품(44.2%), 비철금속(50.9%), 기타 화학제품(70.4%) 등에

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29.4% 증가했고, 수입 동향에서는 전북지역 수입액은 16.7억 달러로 기타 석유제품(-59.5%), 발전기(-39.9%), 강판(-50.6%) 등의 수입이 줄었으나, 기타 유기화합물(43.1%), 사료(51.8%), 자동차 부품(162.9%) 등에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40.0%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동향은 교통(11.9%), 음식 및 숙박(3.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3.6%) 등 모든 물가가 올라 전년동분기대비 3.7% 상승했고 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도 전년동분기대비 5.3% 상승했다.

고용 동향으로 전북지역 고용률은 61.4%로 20대(6.1%)와 40대(1.4%) 등을 중심으로 상승해 전년동분기대비 0.5% 상승했고, 취업자 수는 955.3천명

으로 농업·임업 및 어업(-123천 명), 전기·운수·통신·금융(-6.5천 명) 등에서 줄었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27.7천 명), 관계조업(3.3천 명)에서 늘어 전년동분기대비 88천 명 증가했다. 반면에 실업률은 2.1%로 60세 이상(0.9%), 30~59세(0.1%)에서 증가했으나 15~29세(-4.7%)에서 하락해 전년동분기대비 0.3% 하락했다. 실업자 수는 20.4천 명으로 60세 이상(1.7천 명), 30~59세(0.3천 명)에서 줄었으나 15~29세(-5.0천 명)에서 증가해 전년동분기대비 28천 명 감소했다.

한편 전북지역 인구는 20대(-1,968명), 30대(-261명) 등을 중심으로 1,680명이 순유출돼 고령화 및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희기자



영농철을 앞두고 이뤄지는 논·밭두렁 태우기가 해충 방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 및 불철 산불의 원인이 되는 등 부작용만 이기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논두렁 태우기 “그만”

생육기 해충 방제 효과 없어... 산불 등 발생 우려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전북 도농업기술원과 함께 논두렁 태우기가 생육기 해충 방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연구진은 2020~2021년 동안 전북 김제 부랑면(일반 재배), 완주 이서면(친환경 재배), 익산시 망성면(친환경 재배)의 논과 논두렁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일반 농업지역과 친환경 농업 지역의 논과 논두렁 모두에서 밀구루 등 해충 비율은 4.9~9.1%로 낮았고, 거미류 등 익충의 비율은 90.6~95.1%로 높았다.

논두렁을 태운 후 논과 논두렁의 익충 밀도는 태우기 전보다 최대 95.9%까지 줄었으며, 4주가 지난 때까지 태우기 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논두렁 태우기가 벼 생육기 주요 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벼 이앙 직후인 5월 하순부터 수확기인 10월 중·하순까지 주요 해충 6종의 발생 추이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일반 농업지역과 친환경 농업지역 모두 논두렁을 태운 곳과 태우지 않은 곳의 해충 발생에 큰 차이가 없었다.

전북 김제 부랑면 임연식 농업인은 “겨울철 관행적으로 하던 논두렁 태우기가 병해충 방제에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으니 소각을 자제해 농업생태 보전과 산불 예방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농진청 작물보호과 이세원 과장은 “월동 시기 논두렁을 태워 얻는 해충 방제 효과는 극히 적다”며 “오히려 산불, 미세먼지 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정밀대보를 전후로 논두렁 태우기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희기자

비건식품 ‘성장세’ MZ세대 공략해야

aT, 2021년 가공식품 세분시장 보고서 발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비건식품에 대한 2021 가공식품 세분시장 현황 보고서를 발간해, 식품산업통계정보시스템(www.aTIS.or.kr)에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건식품에 대한 관심은 특히 젊은 세대로 갈수록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홍보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소비를 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표출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편의점도 이러한 MZ세대를 공략하기 위해 비건 트렌드에 맞춰 다양한 비건식품을 출시 중이다. 대형 유통마트는 별도 판매존(ZONE)을 마련해 스낵, 유제품, 면류, 빵류, 냉동식품, 반찬류, 즉석편의식 등 다양한 비건 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국내 비건식품 시장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로 식물성 대체육 시장규모로 추정할 수 있다.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740만 달러(약 209억 원)로 2016년 1,410만 달러(약 169억 원) 대비 23.7% 증가했으며, 원료 유형별로는 콩류가 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비건식품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2020년 11월 13일부터 2021년 11월 13일까지 포털사이트, SNS 등 온라인상 비건 관련 키워드 검색량, 언급량 등을 통해 핵심 키워드를 도출했으며, 소비자 조사는 전국 만 20세~69세 남녀 54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결과다.

/최대희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등이 스마트 의료지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지역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스마트 의료지도사업 활성화·유관기관 협업 강화

전북대병원, 전북지역위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이 스마트 의료지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지역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스마트 의료지도사업의 전북 권역 거점병원으로 선정된 전북대학교 병원은, 전북도청에서 전북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심장 질환자를 대상으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이 스마트 기기를 통해 지도의

사와 함께 전문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심장지 환자의 현장 자발소환율을 높여 응급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 이정우 보건복지과장 ▲전북도 소방본부 오승주 구조구급과장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중앙추진단장 김기운 교수 ▲중앙응급의료센터 석기식 응급의료사업지원팀장 ▲스마트 의료지도 시범사업 전북도 지역위원장 윤재철 교수를 비롯해 전북대 병원, 원광대 병원 의료진 및 구급대원들이 참석해 타 시·도의 경험을 공유하고 전북 지역의 사업 발전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회의 진행은 인천 경기, 광주 등 타 시·도의 사업 경험 및 결과 발표에 이어 전북의 사업진행 보고와 질의응답 순서로 이어졌다.

특히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 이후 현장 자발소환 회복율이 3배 가까이 상승한 타 시도의 경험에 대한 발표 후 전북도 일선 구급대원들의 관심과 질문이 쏟아졌다.

유희철 병원장은 “도내 현장응급의료체계발전엔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며 “전북 권역응급의료센터로서 전북대병원은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최대희 기자

소프트웨어 기업 성장지원 나섰다

도,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희망기업 모집

전북도가 소프트웨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2년도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사업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의 판로개척, 다양화 등 사업화 지원을 통해 소프트웨어산업의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지원(5건), ▲SW/IT기업 맞춤형 성장지원(10건), ▲SW강소기업 도약 패키지 지원(5건), 비즈니스 교류 등 협력관계 조성(2회) 등을 추진한다.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지원 분야는 최신 기술동향에 맞춰 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고, 신기술 분야 품목 지정형, 도내 SW기업-제조기업의 협력과제형, 자유공모형으로 나눠 지원한다.

SW/IT기업의 제품 홍보채널 다양화와 관료화보와 기업성장 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SW/IT기업 맞춤형 성장

지원 ‘분야’에서는 기업 맞춤형 디지털 마케팅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내 SW산업 규모가 미약하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향후 고성장 가능한 SW/IT기업을 발굴·성장시켜 강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SW강소기업 도약 패키지’ 분야도 지원한다.

이번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재)전북테크노파크 R&D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전북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며, 공고 마감일(3월8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전대식 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도내 양질의 SW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함으로써, 도내 SW기업이 국가대표 SW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기업 지원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업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기술개발 5건, SW/IT기업 맞춤형 성장지원 13건, SW강소기업 도약 패키지 지원 10건 등 총 28건을 지원하는 등 SW/IT기업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유호상 기자

도내 탄소기업 대상 방위산업 분야 지원

전북도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함께, 탄소소재 활용 저변 확대와 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산업·수송용 탄소소재 부품 산업 육성 사업’을 공모한다.

산업·수송용 탄소소재 부품 산업 육성은 생산 공정개선 및 시제품 제작 등 기업 애로를 해결해 사업화를 촉진하고, 기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위산업 관련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최근 2년 내 제조공정 라인을 운영하거나 신규 투자하고 있는 도내 탄소 관련 기업이다.

지원 분야는 방위산업 관련 제품 생산기업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정개선과 시제품 제작이다.

공정개선은 1개사에 최대 3억원, 시제품 제작은 3개사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https://www.kitech.re.kr) 또는, 전북테크노파크 누리집(https://www.tjpar.kr)에서 신청서를 받아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본부(063-210-3770)로 문의하면 된다.

/유호상 기자

“마을 활성화 기반 구축, 농외소득 증대 앞장”

전북팜스테이협 정기총회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과 전북팜스테이협의회(회장 노재석, 완주 고산참포마을)는 22일 농협전북본부에서 2022년 전북팜스테이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도내 21개 팜스테이 마을 대표와 사무장, 농협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 노재석 회장(완주 고산참포마을)의 연임을 결정했으며, 농촌지역 자원 활용을 통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마을 활성화 기반을 구축해 농

외소득 증대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노재석 회장은 “팜스테이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농촌체험을 통한 소중한 추억을 선사하고, 농업·농촌의 가치 확산과 전북 팜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팜스테이마을은 농협중앙회가 농촌관광활성화를 통한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1999년부터 본격 육성을 시작했다. 전북팜스테이협의회는 2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으며,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농촌체험과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해 농업과 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자산운용 효율성 극대화... 실험, 조직 개편 단행

실험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실험)는 이번 직제개편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 강화, 영역별 책임경영체제 확립, 업무 효율 및 유연성 증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준수 등을 통한 운용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22일 밝혔다.

먼저 기존 관리이사 체제가 기획, 관리, 대외협력, 디지털금융의 4개 영역별 이사 체제로 개편됐다.

또한, 지난달 1일부터 시행 중인 금

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실은 금융소비자보호부문으로 격상하며, 대표이사 소관으로 이관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는 의견을 반영했다.

실험중앙회연수원도 조합직원의 업무 전문성 강화와 연수원 위상 제고를 위해 부문으로 격상했다.

여기에 더해 실험은 다변화되는 미디어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홍보본부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부문을 분리 신설했다.

/최대희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일입니다.